

##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모든 걸 다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힘들고 아픈가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이렇게 묻는 학생들에게 어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과 고난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죄와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을 당하면 흔히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라는 낚두리를 할 뿐입니다. “망할 놈의 세상 그렇지 뭐”라고 타박하기도 합니다. 환경과 팔자, 부모, 사회를 탓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좋았는데 나오지 못해서”라고 농담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저놈들 때문이라”고 사납게 구는 이들이 많아서 더 문제입니다.

수년 전 쓰나미가 인도양을 휩쓸어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지요. 흉악한 범죄나 전쟁을 보며 사람들은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조금

이라도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이라면 최악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과연 삶에 의미가 있는지도 분명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전도서의 첫 말씀처럼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의 낙원이 아니고 실낙원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한때는 불행과 가난 속에서 살 의욕을 느끼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엔 세상은 아름답고 의미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고통만 가득한 곳으로 보였거든요.

아름답던 세상이 악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는 큰 수수께끼입니다.

### Q1. 악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 죄악의 본질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 하와를 뺐습니다. 여인은 다시 뱀에게 책임을 돌렸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는 사실도 죄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죄악의 원인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결국 미궁에 빠집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신비로 남을 수밖에 없지요.

선악과에 마술적 약효가 있어서 인간이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취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미 악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

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함정이나 덫이 아닙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존중하시는 은총이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지게 된 이유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법이나 도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은 생명과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생명 and 진리의 근원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 Q2.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릴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리도 무섭고 점점 악해져 갈까요?

### 타락의 결과

어쩌다 뉴스를 보노라면 온통 부패와 범죄 이야기투성이라 괜히 봤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류의 비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하는 매사를 통해 온 세상에 죄악이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세상의 역사와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 만물에도 해를 미치지요.

인간 관계는 망가지고 일도 고역이 되었지요. 악은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번져 갔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 영화나 가요가 얼마나 저속하고 퇴폐적인지를 보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도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이기 십상입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비행기가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는 과도한 개발과 낭비로 인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이토록 심각합니다.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칭송받는 모든 것들조차 “허무한 데 굴복”하는 모습은 참담할 뿐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화가 야만보다 오히려 더 악한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들이 늘수록 죄와 악은 더욱 깊고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얼마 안 되어 홍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지요.

세상은 죄악으로 스스로 멸망을 향해 치달고 있었습니다.

### 전적 타락

어떤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고통 없는 출산이나 노동이 무엇인지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잔해로부터 비행기의 본래 모양과 기능을 알아내려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특히 비행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하늘을 날았다고는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지·정·의 전체가 모두 뒤흔어졌지요. 몸은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새삼스레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그때 문이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불신과 서로를 탓하는 태도로 파괴되었고요.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인간은 빠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는 인생의 비참함의 심각성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타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본래적 결함으로 여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잘못된 경제 체제에서 악이 비롯된다고 봅니다. 계몽사상은 교육의 부재로 인한 미신과 몽매가 원인이라 보고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와 악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깊고, 이런 문제들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인간 사회와 문화의 진짜 근본적인 병의 뿌리는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 Q3.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나요?

### 죄악 세상의 미스터리

타락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자연히 그에 대한 대책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본래 그런 것이라고 초월한 듯 냉소적으로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뇌이며 인생은 별 수 없다고 체념에 빠지기도 하지요. 반대로 모든 문제는 혁명이나 개혁을 통해 해결될 거라는 낙관론을 부르짖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판도 낙관도 모두 죄악과 타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면 존재의 근원에 대해 알 수 없듯이 죄와 악의 문제는 더욱 더 깊은 미궁에 빠져 들고 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는 죄악이 널리 퍼졌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죄악과 그로 인한 재난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움처럼 갈등하며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직접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한다 해도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을 뿐입니다.

옳은 악의 문제를 보는 안목을 고쳤고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우리도 죄나 비참함에 직면하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을 때뿐입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시험을 겪게 될 때 이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악의 미로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경 진리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NVP) 등이 있다.